창세기는 시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태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만물의 시작이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였는지, 인간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동산에서 나온 이후 인간이 얼마나 심각하게 범죄하였는지 세상에 얼마나 인간의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하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믿음의 조상의 시작이 있고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계(家係)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상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 온 땅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앞선 7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한 큰 흉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뭄의 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형들의 악한 행동들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시고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단순히 가뭄을 넘길 만한 곡식만 얻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12 아들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와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그 아들들에게 후일에 있을 일을 선포합니다.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자손의 자손들에게 그 말씀이 이어지도록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는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곳에서 그들을 구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이미 알려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약 200여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15:13-16).

그리고 그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들으셨다는 말씀은 이제까지는 안 듣고 계시다가 이제서야 들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억하셨다는 말씀은 이제까지 잊고 계시다가 이제서야 기억해 내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항상 듣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영락없이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겸손하게 기다리며 그 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때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나일 강에서 건져진 이 사람은 '끌어내다', '건져내다'라는 의미로 모세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시고 건져내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치 앞도 내다볼 능력이 없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한없는 기쁨 가운데 있다가도 한 순간 고통이 찾아 오기도 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가도 어느 한 날에 그 고난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한 어린 아이가 불안 불안한 걸음으로 놀이터를 뛰어 다닐 때에도 그 부모의 눈길은 그 아이를 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고난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1:21).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로부터 끌어 내시고 죄로부터 건져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 받아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